

사용상의주의사항

1. 경고

앰플 주사제는 용기절단 시,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,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,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, 노약자에 사용 시는 각별히 주의한다.

2.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.

- 1)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서의 과민반응 환자
- 2) 고수산뇨증(hyperoxaluria : 요중에 과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), 지중해빈혈증 환자
- 3) 통풍환자 및 시스틴뇨증 환자
- 4) Glucose-6-phosphate dehydrogenase (G6PD) 결핍환자 :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용혈을 초래할 수 있다.
- 5) 신장의 수산결석 환자 : 1일 1 g 이상 투여할 경우

3. 이상반응

- 1) 구역, 구토, 설사, 속쓰림, 복부경련, 피로, 홍조, 두통, 불면이 나타날 수 있다.
- 2) 1일 1 g 이상 투여 시, 요의 산성화로 설사 및 신결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.
- 3) 1일 600 mg 이상의 용량 투여 시, 이노작용이 발현될 수 있다.
- 4) G6PD 결핍환자에서 용혈이 발생될 수 있다.

4. 일반적 주의

- 1) 과량의 아스코르빈산 투여는 고수산뇨증, 또는 요산염, 시스틴, 수산염 또는 기타약물을 요로에 침전시킬 수 있다.
- 2) 이 약은 통상적으로 경구투여하며 주사투여는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, 즉, 소장의 흡수불량에 의한 비타민 C 결핍증 및 인공정맥영양투여에 한하여 실시한다. 또한, 경구투여가 가능하고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곧 경구투여로 전환한다.

5. 상호작용

- 1) 살리실산염은 비타민 C의 백혈구와 혈소판으로의 흡수를 저해한다.
- 2) 아스피린, 흡연을 통한 니코틴, 알코올, 일부 식욕저해제, 철분제, 페니토인 및 일부 항전간제,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경구용 피임약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의 병용은 이 약의 조직 탈포화작용(tissue desaturation)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병용을 피한다.
- 3) 이 약의 고용량 투여 시, 경구용 항응고제(쿠마린계 약물)의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.
- 4) 이 약과 플루페나진과의 병용 시, 플루페나진의 혈장농도가 저하된다.
- 5) 바르비탈산 유도체는 이 약의 신장 배설을 촉진한다.
- 6)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이 약의 산화를 증가시킨다.

6.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

- 1) 임부 투여 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나 생식능에 대한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약의 투여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.
- 2) 고용량 투여에 대한 태아의 영향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임신 중 이 약을 1 g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.
- 3) 임신 중,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, 신생아에게 괴혈병을 초래할 수 있다.
- 4) 이 약은 유즙으로 이행되나 1일 상용량 투여 시, 영아에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.

7. 임상검사치에의 영향

- 1) 각종 요당 검사 시, 요당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다.
- 2) 각종 요검사시의 혈뇨검사 또는 대변의 잠혈검사시 위음성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.

8. 과량투여 시의 처치

과량투여 시, 설사, 신장의 수산결석을 초래할 수 있으며 1일 600 mg 이상의 용량은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. 과량 독성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고 대증요법을 실시한다.

9. 적용상의 주의

- 1) 이 약은 피하 또는 근육주사할 때, 주사부위에 일시적인 경미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.
- 2) 피하, 근육주사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용량을 투여하되 신경주행부위를 피하고 동일 부위에 반복 주사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, 신생아, 미숙아, 유·소아에의 투여 시 주의한다.
- 3) 주사침을 삽입할 때 격통을 호소하거나 혈액의 역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침을 뽑아야 한다.
- 4) 정맥투여 시, 주사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절, 어지러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혈관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천천히 주사한다.

10.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

- 1)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.
- 2)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.
- 3) 의약품은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.